부처님 자비광명 함께 하길

광용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지혜와 복덕의 불성을 원만히 갖추고 있다고 선언하신 날입니다. 산천초목이 풍요롭고 오색 등불이 온 누리에 출렁이며 저마다의 소원을 머금고 중생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품어 줍니다. 즉심시불(卽心是佛)이란 마음이 곧 부처라는 뜻입니다. 올해는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와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마음의 어둠을 밝혀 주는 연등처럼 밝고 편안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서원, 환한 등불 되길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중앙신도회에서는 1700년 한국불교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최초 불교 성지를 계승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쓰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젊은 이미지의 불교로 주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라·백제로부터 시작된 한반도 불교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미래 세대에게 알리는 것 또한 불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자로서의 본분을 그동안 다해 왔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 우리의 서원이 환한 등불이 되어 부처님께 닿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대학생 전법단, 불교중흥 디딤돌

윤재웅 동국대 총장



우리 캠퍼스에서는 건학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불교학생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중흥의 역사를 새로 써나갈 수 있는 대학생 청년 전법단이 불교종립대학에서 새로 태어나는 중입니다. 이들이 동국 발전의 주춧돌이요, 불교중흥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매일 매일 매 순간을 이런 마음으로 정진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요,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길을 따라 열심히 정진하고 신행활동 또한 여법하게 하시길 발원합니다.

자비 손길 나누는데 앞장

김의정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장



전국 사찰과 거리에 밝혀진 연등의 불빛을 보면서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한편,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지구 반대편 이웃의 아픔,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세대적 갈등,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개개인의 지나친 욕망의 공업(共業)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중생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가냘프게 느껴집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여성불자들은 나로 인해 세상이 기뻐할 수 있도록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자비의 손길을 나누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행복한 세상 밝히는 등불되길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부처님께서는 오직 중생들에게 모든 행복의 근원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분별과 시비로 인한 갈등은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진 행복을 찾아내지 못한 채, 외부의 행복만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날갯짓에 지친 새들에게는 안락한 휴식을 위한 숲과 둥지가 필요하듯이 반목과 질시의 마음에 전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국회, 현실 환히 밝히는 연등될 것"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민대표자회의인 국회의 넓고 푸른광장에 등을 밝혔습니다.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 이 말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부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등을 밝히면서 저출생, 저성장, 고물가 등 어려운 현실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지혜를 부처님께 구해봅니다. 국회가 어두운 현실을 환하게 밝히는 연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처님 법 전하는 청년불자 됩시다"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우리 청년 불자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여유를 가져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평화로운 공동체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온세계 인류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나를 찾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모두 서로를 사랑합시다. 긍정적으로 바라봅시다. 부처님 법 전하는 청년불자가 되어 봅시다.

자리이타 자비사상 전법으로 실천

김영석 조계종 포교사단장



개인의 마음과 삶은 긴장과 우울 등으로 주체적인 삶을 상실하고 있고 사회와 국가 간은 극단의 대립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인류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 실현을 위해 부처님 마음수행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국민도 부처님의 마음명상과 수행으로 마음의 건강과 평화를 이루며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 법 포교하는 포교사단도 부처님의 마음명상과 수행에 더욱 정진하고 자리이타 자비사상을 실행하겠습니다.

"나랏일을 부처님 같이"

정승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어지러운 가운데에서 자아를 찾아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공무원 불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나랏일을 부처님같이, 국민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공불련의 창립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맡은 직무를 바르게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 불자는 날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며 공직사회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부처님 법 실천이 삶의 행복

황경환 21세기불교포럼 이사장



인간의 몸을 받아, 무진(無塵) 되돌아보고 되돌아보아도 세상이라는 대도량(大道場)에 인간의 몸을 받아 왔다가 가는 길에 오직 의미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부처님 법을 만나 그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익히고 따르고 실천하며 사는 삶이 최상의 행복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정진하며 각자의 행복, 우리 사회의 을 찾도록 합시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널리 퍼져 보다 많은 이들이 행복한 세상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정론직필로 지혜 연등 밝히겠다"

김보배 한국불교기자협회장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나가길 발원합니다. 한국불교기자협회는 올해 제22대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심과 열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말과 글로 포교에 앞장서 온 기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우의를 증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론직필을 통해 지혜의 연등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봄날을 맞은 지금, 더욱 정진하여 행복한 세상을 위해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바른 신심으로 한국불교 미래될 것"

주현우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을 맞아 전국의 모든 대학생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봉축의 기쁨을 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학생 전법과 포교의 원력이 깊어가는 요즘입니다. 대학생 불자들의 활동과 성장에 관심 가져 주시며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대불련은 언제나처럼 대학생 청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의 씨앗을 심어 바른 신심을 키우며 한국 불교의 든든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